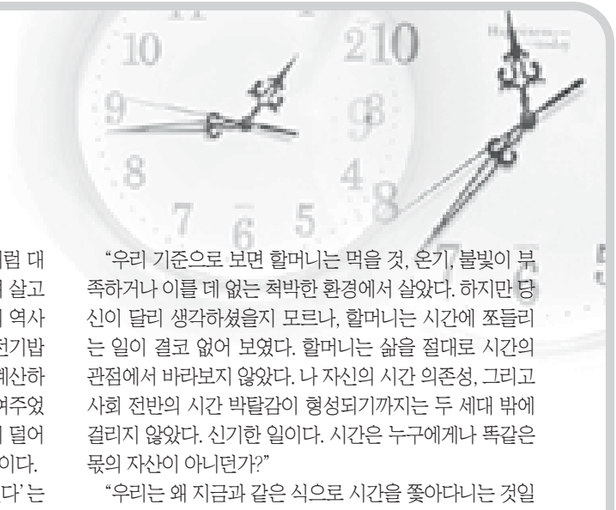
현실에서 시간의 의미와 가치 찾기

시간? 시간이 뭐지?



다섯 살 난 아이가 "5년 후 나는 몇 살이 되나요?"라고 물으면 서슴없이 "열 살이 되지"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20년 후에는 내가 몇 살이죠?"라고 묻는다면 어떨까? 수치로서의 대답은 쉽다. "그야 백 스물다섯 살이지"라고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겠는가? 어른의 입장에서 그 아이에게 125세라는 나이는 실존적인 수치가 아니다. 그 나이까지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의 단위, 그 분절체의 실재란 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열가지 생각
보딜 옌손 지음|이섬민 옮김
여름언덕 펴냄|8,800원

<벽암록> 제3칙은 '마대사 몸져눕다(馬大師不安)'이다. 마조가 아파 누워 있는데 원주가 찾아와 묻는다. "스님 오늘은 좀 어떠십니까?" 마조가 답한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라고. 여기서 월면불은 극도로 짧은 시간을 일면불은 무한히 긴 시간을 뜻한다. 아파 누워 있는 마조에게 '아파 누워있는 시간'은 시간을 초월한 시간인 것이다. 마조의 대답이 <벽암록>의 세 번째 공안으로 자리함으로써 시간을 초월한 깨달음의 세계를 갈망하던 선사들의 기개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엿볼 수 있다.

시간. 우리는 늘 시간을 말하고 시간 속에서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속에서 시간을 허비한다. 물속의 물고기처럼 대기 속의 날짐승처럼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재며 살고 있다.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시간단축의 역사다. 세탁기가 나와서 빨래하는 시간을 줄여주었고 전기밥솥이 나와서 밥 짓는 시간을 벌어 주었다. 컴퓨터가 계산하고 글 쓰고 자료를 종합하거나 분석하는 시간을 줄여주었고 생산라인의 각종 자동화 기기가 일손을 엄청나게 덜어주었다. 기계의 발달은 시간의 절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무엇이 그리 바쁘고 무슨 일이 그리 많은가? 시간을 절약해 주는 온갖 장치들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현대인은 아닐는지?

스웨덴의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저술가인 보딜 옌손의 <시간에 대한 열 가지 생각>은 인간 삶에서의 시간이 갖는 철학적 의미를 짚고 있다. 인간의 한 평생은 70년 혹은 80년 덩어리로써의 생애가 아니라 자잘하게 조각난 시간들의 연결로 이루어진다. 조각난 시간 채우기가 인생이라는 것이다. 옌손은 이러한 관점에서 짧지만 의미 있는 통찰로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 준다. 시(時)테크 전략 서적은 아니고 철학이나 물리학 서적도 아니다. 하지만, 점점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삶의 속도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 패러다임의 담론을 제안하는 옌손의 목소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할머니는 먹을 것, 온기, 불빛이 부족하거나 이를 데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았다. 하지만 당신이 달리 생각하셨을지 모르나, 할머니는 시간에 쪼들리는 일이 결코 없어 보였다. 할머니는 삶을 절대로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나 자신의 시간 의존성, 그리고 사회 전반의 시간 박탈감이 형성되기까지는 두 세대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신기한 일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몫의 자산이 아니던가?"

"우리는 왜 지금과 같은 식으로 시간을 쫓아다니는 것일까?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의 사고 패턴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를 인공 시간의 지배하에 놓이게 한 것은 산업화였다. 인공 시간의 지배와 그 임박한 붕괴는 노동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노동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책에서 말하는 '열 가지 생각'은 우리 주변의 일상과 그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과 사고할 수 있는 주제들이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자신으로써의 시간, 시계 속에서 분별되는 시간과 체험으로 형성되는 시간, 무엇을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 생각하는 시간과 세계화의 속도 등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현실적인 입장에서 시간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다. 각 목차의 부제들이 하나의 격언처럼 흥미롭다. '삶은 3만번의 낮과 밤으로 이뤄진다'(제1장) '금방이 얼마나 쌓여야 15분이 되는가'(제2장) '시간은 리듬에도 반영된다'(제8장) '자신에게서 풀려나 새롭게 생각하기'(제10장) 등이다.

임연태 기자

고승들의 해학과 비판요소 가미

만인보 24~26권 고은 지음|창비 펴냄|각 권9000원

우리나라의 대표 시인 고은이 자신의 평생 역작이라 할 수 있는 <만인보>를 계속 출간하고 있다. 21~23권을 출간한 지 1년 7개월 만에 24~26권(395편의 시)을 출간했다. 고은의 <만인보>는 민초의 삶과 역사에서 잊혀가는 인물들에 혼을 불어넣는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세 권에서는 주로 신라시대부터 근대까지 불교사에 길이 남을 만한 고승들의 삶과 행적을 복원해냈다. 고승들을 경외의 대상으로만 그리지 않고 해학과 비판적인 요소도 가미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고은 시인이 한때 승려였음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킨다. 마의태자, 원광 등 역사적 인물과 이름 없는 승려들의 곡절 많은 삶을 시에 압축했고, 이회광 등 친일 승의 비열함도 비판한다. 종교적 아우라(예술작품에서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에 가렸던 사찰의 내밀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주지 자리 하나에 지옥 3천개인 줄 몰랐더냐/ 영천 은해사 주지 그만두고/ 봉암사 토굴에 들어온 지/벌써 4년 반// 이제 잠 오면 자고/배고프면/솔잎가루 먹고/ 율무가루 먹는다"('독살이 희만선사'에서) 향기로운 인물에 대한 찬양과 변절자에 대한 독설 사이에 해학 어린 시편도 보인다.

김주일 기자

탄허 스님 일대기 소설로…

소설탄허
백금남 지음
동쪽나라 펴냄|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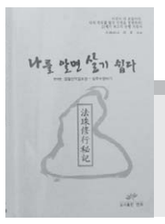
49년간 오대산 월정사에서 주석하며 유교 경전을 두루 섭렵하고, <화엄경> 등 난해한 경전을 번역해 국내 · 외 불교계의 찬사를 받았던 택성 탄허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엮었다. <십우도>, <칼의 어록>을 집필한 저자가 설명이나 주장이 아닌 '이야기'로 탄허 스님의 일대기를 재구성하고자 했다.

탄허 스님은 생전에 번역한 원고가 10만여 매를 넘겼음에도 사적인 글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스님이 남긴 일화, 설법, 대담, 살아 있을 때 교분을 맺은 이들로부터 들은 증언들을 토대로 앞뒤를 유추해 작품을 완성했다.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가의 모든 경서를 섭렵하고 노자와 장자까지 두루 통달했음에도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의혹을 풀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 유생의 모습, 갈등과 방황을 끝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의 의식적 변화 과정 등이 다양한 일화들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로 되살아난다.

김주일 기자

내 안 붓다를 찾도록 인도…



나를 알면 살기 쉽다
스라마나 석호 지음
도서출판 연화 펴냄 | 5만원

석호 스님이 현대판 점찰선악업보경-법주수행비기 <나를 알면 살기 쉽다>를 펴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을 아예 모른다. 약간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보배가 있는 줄 어렴풋이나마 안다. 완전히 지혜로운 자는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줄 안다. 이 수행서는 약간 지혜로운 자가 자기 속에 든 보배를 끄집어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내 안의 깨어있는 붓다를 찾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수행서이자 현재의 모습에 따라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마음 과학에 의해 밝혀놓은 책이다. 법주수행에 사용하는 법주(法珠)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점치는 숫자를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법주는 0부터 36이 새겨진 37개의 구슬로 이뤄져 숫자의 차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줄에 꿴다. 염주와 유사하게 생긴 법주를 책과 함께 제공한다.

강지연 기자

티베트 불교 가르침 구도 소설

탄트라의 길
울리 올베디 지음|김인순 옮김
조화로운 삶 펴냄|1만4000원

<탄트라의 길>은 여주인공 마일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기억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지, 탄트라의 깊은 명상 단계를 어떤 방식으로 얻게 되는 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구도 소설이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되는 화두는 '깨어나라'와 '춤을 추어라'이다. 깨어나기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눈뜨는 것이고, 춤추기는 자아와 우주가 하나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고향을 떠난 마일리는 카트만두의 한 사원을 찾아가 수행자가 되지만 비구승 쇠남과 사랑에 빠진다. 결국 마일리는 사원을 떠난다. 이런 그녀에게 사원의 요기니는 말한다. "사랑은 무지한 사람에게는 속박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자유를 가져다준다"고. 저자는 소설의 이야기 구조를 빌려 이처럼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한 비구니의 삶에 비춰 흥미롭게 전개한다. 자신 또한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저자 올베디는 섬세한 묘사로 신비로운 티베트 불교의 매력과 독특한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4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5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6	염불선	덕산	클리어마인드
7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성철	장경각
8	나마스테, 여기는 붓다의 나라	향덕	운주사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이것이 바로 "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

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寶書)이다.
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 성중과 나한이 삼재팔난을 제거할 것이다. - 불세존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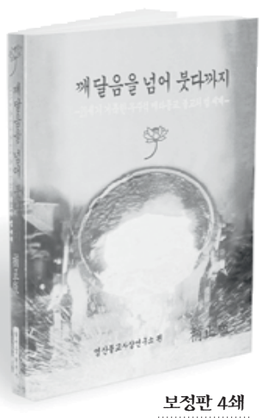
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절찬리 판매중

개정판이 나와 발행 2년만에 11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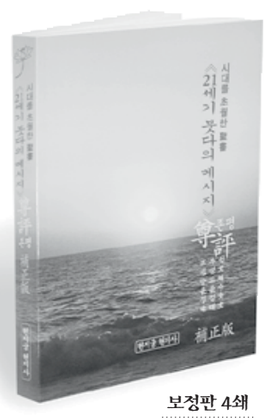
개정판 11쇄
370쪽 / 15,000원

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 불교의 법세계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보정판 4쇄
509쪽 / 15,000원

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尊評"



보정판 4쇄
489쪽 / 15,000원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부산 분원 Tel 051)554-5150